

1부: 주일에배

(창조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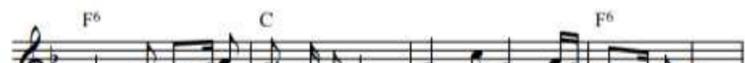
* 표는 일어남

정 울 림

*여는 찬송 국악 찬송 167장 (하늘 나는 새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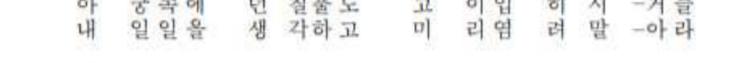
1. 하늘나는 새를 보라 눈 사하지 않으며
2. 들에피는 꽃을 보라 길 참수고 안해도
3.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



곡 식 모아 곳 간안에 들 인 것 이 없어도
술 로 쓴 의 의 복보다 더 옥아 름 답도다
하 나님 이 모 든 것 을 너 회에 게 주 신 다



하늘계신 아버지 가 고 이 먹 여 주 시니
아궁속에 던질 풀도 고 이 입 히 시 거 늘
내 일 일 을 생 각 하고 미 리 염 려 말 아라



먹고마실 것 을 위 해 아 무 염 려 말 아라
사 랑하 는 자 녀 들 을 입 히 시 지 않 으라
오 늘 일 만 생 각 하고 있 는 힘 을 다 하라

목회기도 (침묵기도)

기도송



평 화 이 루 소 서 평 화 이 루 소 서 주 여 평 화 이 루 소 서

찬양

행복 (글/곡: 손경민, 편곡: 윤창희)

화려하지 않아도 절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리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리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리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리오

성서읽기 사무엘기상 1:4~20(407쪽), 히브리서 10:11~14, 19~25(386쪽)

[사무엘기상 1:4~20]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담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담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3)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 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히브리서 10:11~14, 19~25]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함께 읽는 말씀 사무엘기상 1:17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말씀 묵상송 국악 찬송 9장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복음서읽기 마가복음서 13:1-8

[마가복음서 13:1~8]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읽은이 :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중 :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교육부 하늘뜻펴기 "이제 슬프지 않아요" 찬양: "너와 나의 모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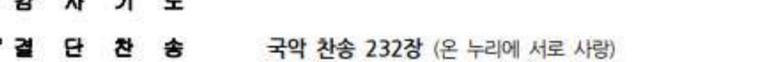
성인 하늘뜻펴기

*감사송 국악 찬송 1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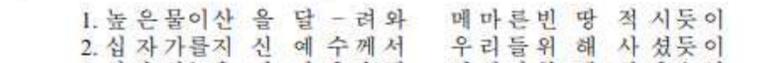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 한데 모아 바치나이이다

*감사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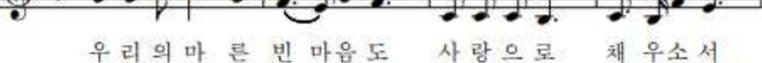
*결단찬송 국악 찬송 232장 (온 누리에 서로 사랑)



1. 높은물이산 을 달 려와 메 마른 빈 땅 적 시듯이
2. 십자가를지 신 예수께서 우리들위 해 사셨듯이
3. 찬송하는우리 마음속에 언제나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마 른 빈 마음 도 사 랑으로 채 우소서
우리도 형 제 위 하 여 우리 의 것 나 누리 라
기도하는우리 마음 에 언 제 나함께 하 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땅위에 펼 치소서 -
예수님의 깊은 사랑 이땅위에 펼 치리 라 -
찬송하며 형제 사랑 이땅위에 펼 치리 라 -



하 나님의 넓 은 사랑 온누리에 채 우소서 -
예 수님의 값 진 사랑 온누리에 채 우리 라 -
기 도하며 이 웃사랑 온누리에 채 우리 라 -

*세상으로보냄

*축복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13)

*응답송

*정울림